

GGM, 청년 일자리 추가로 늘려 광주 이탈 막는다

신입공채 50여명 모집…19일까지 접수
작년 하반기 27명 경쟁률 평균 36.7대 1
올해 기술직 평균 연봉 5천만원 넘을 듯

광주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새해 벽두부터 50여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자리의 히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GGM은 지난해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만8천400대를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올해도 전기차 및 수출차 생산을 늘려 지난해보다 48%(2천800대) 증가한 6만1천2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산 목표가 올해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시간당 생산량(UPH)을 현재 287대에서 295대로 증설할 방침이다. 72억 원을 투입해 설비증설공사와 함께 인원도 5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해 공채에 나선 것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이후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와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건강검진 등을 거쳐 3월9일 입사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9월 하반기 공채에는 27명 모집에 992명이 지원, 평균 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채에 취준생들이 많이 몰린 것은 광주 지역 전자산업과 건설업의 동반부진, 대기업 공장의 해재로 인한 실직과 휴직, 전남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의 불황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GM이 극심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운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9월부터 캐스퍼를 본격 생산한 GGM은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 일감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도 2021년 555명에서 지난해 706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50여명을 뽑을 경우 5년 새에 200여명이 늘어 올해 756명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직원 중 광주전남 출신이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20~30대 젊은이도 85%에 달한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 기술직 평균 연봉은 2021년 3천1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광주시의 주거 지원비 360만원을 포함해 4천90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 중 상생 협력 기여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75만원) 인상이며, 2023년 300만원과 비교하면 96% (200만원) 오른 금액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임금 항목에 직무급이 신설돼 직무 난이도와 업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게 됐다. 이는 임금 3%가 오르는 효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 21%를 합하면 5% 인상에 달해 기술직 평균 연봉이 5천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GGM은 광주전남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공헌 성격의 회사"라면서 "올해 2교대 전환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2교대를 추진해 4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겠다"면서 "앞으로 GGM은 지속 가능한 강소형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롯데백화점 설 상품권
롯데백화점이 다음 달 13일까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롯데백화점 상품권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델들이 상품권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美 송전망 시장 공략 본격화

전력분야 선두기업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 체결

한국전력(한전)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1일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

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 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 텍사스, 중서부 등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세계적으로 경

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기술 컨설팅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고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스앤맥도널 CEO 레슬리 라크(Leslie Duke)는 "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대규모 765kV 송전망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분야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강기정 시장 강연 성황

인공지능 등 주요사업 현안 설명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일 "지난 9일 허리데 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0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새해 첫 강연자로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6년 광주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참정부 이후 1년 8개월 최장수 정무수석을 지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빛의 혁명·부강한 광주 도약 사업이 대거 반영돼 전년 대비 5천639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천4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광주시가 국비 최우선 과제로 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실현 용역비 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정부안 240억원·국회 추가 56억 원)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GIST 부설 AI영재학교 설립비 31억천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율리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을 시작으로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조하면서 광주형 실리콘밸리 중심의 '부강한 신경 제지도'로 마무리했다. /임채만 기자

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사용기한 없음

365일 관리

전문 이장

가족구성 가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